

## 제4권 (2단원 : 십자가의 도)

## (제9과) 대속의 십자가

· 본문 : 베드로전서 2:22-25

· 요절 :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24상)

· 찬송 : 135장(새찬송가 150장), 417장(새찬송가 295장)

오늘날 십자가는 비단 기독교의 상징물로서뿐 아니라, 적십자 기구의 휘장이나 각종 의료 기관의 표시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여성의 장신구에도 애용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십자가를 낯설거나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매우 친숙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십자가의 유래와 그 신앙적인 의미를 안다면 십자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본디 고대 페르시아에서 고안되어 이후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사형틀로서, 로마 시대에는 반란죄나 살인죄나 강도죄 등을 범한 흉악범들을 매달아 처형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잔인하고 흉측한 형벌의 도구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십자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것조차 꺼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초대 교회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신앙하고 그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왔으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인류가 고안해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것은 십자가형일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죄수는 온갖 수모를 받고, 못박힌 상처로 인한 아픔과 낮의 열기와 밤의 냉기로 인해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흉악한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달려 죽으셨으니 놀라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 때부터 원죄를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범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 데, 어찌하여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참혹한 죽음을 당해야 하셨을까요?

그것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24상) 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신 21:23하)라고 선포된 대로 예수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음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신 심판은 말로 다할 수 없이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대낮인데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덮인 가운데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까닭에 그를 믿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요 5:24).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고통당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성결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9~10) 하신 성경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마음이 무딘 사람이라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좋아하는 자를 사랑하며 자기를 해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업신여기며 죄된 삶을 추구할 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되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시어 대속의 죽음을 당케 하셨습니다. 참으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롬 5:7,8).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용서받은 자답게 이웃과 형제들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3. 오직 믿음으로만 대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는데(요 19:30), 이는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때까지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던 구약의 속죄 제사가 더 이상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 10:11~14)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속죄 제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속죄 제사의 효력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이로써 인생은 구약의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온전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총을 값없이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보혈을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하시려 그 아들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 죄사함과 구원을 값없이 얻은 자 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